

P7. 한국전통염색방법의 비교연구

— 상방정례, 규합총서, 임원경제지, 탁지준절을 중심으로 —

유명님*, 노의경¹⁾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서울대 의류학과¹⁾

1. 서론

전통염색은 합성염료가 공해를 수반하는데 반하여 오히려 득이 되며 염료 자체가 갖고 있는 색의 복합성 때문에 추출색은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이렇듯 훌륭한 선조들의 문화유산이 편리한 합성염료로 인하여 그 전통과 단절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방정례, 규합총서, 임원경제지, 탁지준절 등의 문헌에 수록된 전통염색방법을 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조선시대의 상방정례, 규합총서, 임원경제지, 탁지준절 등의 4개의 고문헌에 기록된 염색방법을 목록화하여 분석하였다.

3. 결론

- 가. 상방정례, 규합총서, 임원경제지, 탁지준절 등의 4개의 고문헌에는 총 94가지의 염색방법이 수록되어 있었다. 상방정례에는 7가지, 규합총서에는 27가지, 임원경제지에서 54가지, 탁지준절에는 6가지의 염색방법이 있다.
- 나. 4가지의 고문헌에는 62가지의 색명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동일한 염재와 매염제 및 조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량에 따라서 연홍·도홍·은홍·수홍과 같이 짙고 연함에 따라서 색명이 다르게 기입되어 있기도 하다.
- 다. 4가지의 고문헌에서 홍색계는 17가지의 색명에 총 23가지의 염색방법이 있으며, 황색계에는 10가지의 색명에 17가지의 염색방법이, 청색계에는 10가지의 색명에 11가지의 염색방법이, 녹색계에는 8가지의 색명에 11가지 방법이, 자색계에는 4가지의 색명에 9가지의 염색방법이, 갈색계에는 10가지의 색명에 15가지 염색방법이, 무채색계에는 4가지의 색명에 8가지 염색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 라. 상방정례에는 5가지 종류의 염재가 사용되었으며, 규합총서에는 20가지의 염재가, 임원경제지에는 34가지의 염재가, 탁지준절에는 6가지의 염재가 사용되었다.
- 마. 총 94가지의 염색방법 중 단독염색이 61가지의 방법이 나오며, 복합염색은 31가지가 나온다. 각각의 문헌에서의 단독염색과 복합염색의 횟수를 보면 상방정례에서는 6, 1가지, 규합총서에서는 19, 8가지, 임원경제지에서는 31, 23가지, 탁지준절에는 5, 1가지의 방법이 제시되었다.